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호남 문화

정 바로알기

법과 질서



조만형

학교폭력의 해법은 가정에 있다

학교폭력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의 곳곳에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까지도,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각종 대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대구, 광주 등에서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잇달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초 4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 558만 명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당시자인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단체, 경찰청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 국회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나섰다.

물론 정부는 4~5년을 주기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은 하였다. 하지만 그 대책이란 게 일선학교에서의 관련교육 강화, 배움터 지킴이 배치, 시민단체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균질 활동 등과 이에 더해 학교폭력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를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에도 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교육청에 위센터를 두어 전문상담의 체계화를 시도하였지만 상당 인력의 부족과 운영의 미숙으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문제 원인과 해결의 접근 방식이 가장 파괴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 청소년 문화의 병리 현상 등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대체로 미봉책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청소년들의 1차적 책임자인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악화되었음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제는 다소간의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이며 예방적 해결책으로써 가정, 즉 부모들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는 그 어느 상담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하고 나설라치면 “그래,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고 하시던 부모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따라서 그 때 우리는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먼 학창 시절을 보냈다. 당시에도 같은 학급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또래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일방적 따돌림이나, 갈취, 폭력 등은 드물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의 경우 그들이 속한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결손은 물론이고 부모의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 결핍이 학교폭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며 자란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성격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큰 부분이 형성된다.

유태인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고 말한다. 서양 격언에서도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백 사람의 교사보다 낫다”고 했다. 비단 어머니만 그럴까? 아버지 역시 자녀의 역사를 바꾸어나갈 엄청난 인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개의 부모들은 학교 교육이 자녀의 인격 성숙과 발전을 모두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가정과 학교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교육의 실마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가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때 학교폭력은 대폭적으로 줄 것이다.

과거 우리 조상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

한 소위 ‘조백교육’을 중시했다. 그것은 가정교육의 시작이었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해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깨워주는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가치로 삼고 나아갈 스스로 잘잘못을 가릴 줄 아는 조백을 길러주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부모 교육이 다시 말하자면 가정교육이 소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적게 낳고 학교폭력 된 데다 부모들이 직장으로 바쁘다 보니 빚어진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하기보다 밥상머리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해 볼 필요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이지메 폭력으로 흉역을 얹던 일본의 학교 폭력은 요즘 주춤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가정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부모의 역할을 회복할 때이다.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신대학교·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고·칼·럼



일 담

우리는 모두 별이다

이었던 보립사에 살던 헤온스님이 수행을 하던 중에 하루는 꿈을 꾸었다. 신비롭고 경건한 순백의 큰 학이 자신을 인도해서 백운산 서쪽 능선에 내려앉는 꿈이었다. 그 꿈을 좇아 지금의 생일도 학서암 자리에 곧바로 절을 짓고 학이 사는 산서로운 절이라는 뜻으로 학서암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터를 잡은 학서암은 주변 삼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한다. 매년 정초가 되면 인근의 금일도, 쟁도, 신도, 금당도 등지의 삼에서 불공을 드리려 오는 빛단배들이 줄을 이었다.

바람을 가득 담은 수많은 빛단배들이 선량도에 배를 대는 모습은 지금에 와선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일찍이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일구었던 삼사람들은 물에 사는 사람들보다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일찍 터득했으리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거스르지 못

하는 자연에 대한 숭배는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이어진다. 저마다의 바람과 소망을 안고 바다를 건너 산을 올랐던 삼사람들의 지극한 마음에 수행과 기복이라는 자대를 가지고 재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의 순박하고 지고한 마음에 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학서암을 거쳐 백운산 정상에 오르면 완도의 수많은 삼들이 한눈에 펼쳐진다. 장흥 소년 뱃사공이 일본 순시선의 눈을 피해 동학 농민군을 피신 시켰던 약산과 금일도, 일제에 맞서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소안도, 서른이 넘지 않은 나이에 행장의 이슬로 사라진 허사겸이 봉기를 일으켰던 완도, 다산의 형이었던 정약전이 유배와 홀로 숨었던 신지도, 삼들은 그렇게 고리로 물고 수많은 산을 품고 바다에 떠 있다.

백련사에서 남도 기행 텁플스테이를 하면

서 종종 학서암과 백운산을 오른다. 산꼭대기에 오르면 모두들 명상을 하게끔 한다. 물론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한다. 화엄경을 보면 ‘중생은 부처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그 말은 쉽지 않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진다. 우리는 모두 정말 별일까?

해답은 쉽지 않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다. 그것은 청발성(emergent property), 전체의 각 부분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는 속성에 의존한다. 보립사의 스님이 꿈을 꾸고 학서암을 세우고 수많은 삼사람들이 배를 타고 선량도를 찾고 그들의 소망과 꿈,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는 삼 이야기들, 그 중중무진 화엄의 바다에 빠져 인과의 이치에 따라 오늘에 이른 우리들, 그렇게 무의식의 정서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별임을 깨닫게 되는 단초가 제공된다.

하늘의 은하수 같은 삼들의 물결, 그 삼에 사는 사람들의 한숨과 소망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인다. 〈백련사 총무수님〉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적으로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오염에 의한 피해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면서 물의 소중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젖줄인 영산강 또한 수질을 깨끗하게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 그리고 비점오염원 속에 우리의 영산강은 더럽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산강은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 희망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스스로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청정 영산강은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영산강으로 만들기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청소년 금융·경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경제교육 비중이 1%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교과과정부터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또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고와 경제난에 쪼들리다 저소득층이 되고 또한 노숙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금융과 경제 이해 테스트를 적극 활용하고 광주일보 같은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을 상시로 시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1% 불과한 초·중·고 경제교육 비중 대폭 늘려야

10여년 전 IMF 경제 지원을 받을 때 우리나라 유치원생도 아는 단어들이 몇 개 생겨났다.

당장 IMF라는 말부터 경제에 웬만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생소한 말이었는데 그게 가장 유명해졌고 빅딜, 구조조정, 신용불량, 모라토리엄, 모랄해저드 등 이런 단어들이 온 나라에 일반百姓처럼 알려졌다. IMF가 그야말로 전 국민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절절한 실물경제 교육을 해준 셈이다.

얼마 전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초·중·고등학교 금융·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접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로 놀라운 지경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이해도 모의 테스트를 해 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37.6점 뿐이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관리와 신용관리 문제의 경우 제대로 답을 맞춘 학생이 16%와 22%에 불과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시·설

여수박람회 ‘지역 잔치’ 안되게 하려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지역축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다. 관람객 수조사 결과, 외국 관람객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티켓 예매율도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여수박람회 조직위가 경희대에 의뢰해 실시한 제3차 관람객 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1082만 1000명으로 1년 전 2차 조사 때보다 34만 명이 늘었다.

하지만, 외국 관람객은 48만 9000명으로 당초 목표인 55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해 2005년 아시아박람회 4.8%, 2010년 상해박람회 5.8% 등에 크게 못 미친다.

또 입장권 예매도 5만 2656매로 목표인 800만 매의 0.6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개월간의 예산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허술한 광주시 제설대책, 불안한 시민들

광주시의 제설대책이 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설제인 염화칼슘과 소금도 테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 광주·전남지역에 폭설이 예상된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를 전 광주시는 새벽부터 최고 7.2cm의 많은 눈이 내리자 “공무원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침을 관내 공무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출근길에 나선데다 아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또 공무원들 대부분이 자택에 제설 도구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집 앞의 눈을 치우라는 ‘지침’ 자체가 허울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염화칼슘과 소금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 각 자치구가 이날 많은 양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소비하면서 서구, 북구, 광산구는 제설제 보유량이 하루나 이를 분량에 그쳐 당장 다음 주초 폭설이 내

게다가 낮은 인지도도 문제다. 이번 조사 결과 인지도는 49.2%로 대전박람회의 개최 1년 전 인지도 76%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29세 젊은층의 48.8%가 박람회 개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조한 입장권 예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비롯해 세밀한 해외마케팅 전략 등은 선결과제임에 틀림없다. 여수박람회가 낙후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여수시와 전남도, 박람회 조직위 등은 3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관람객 저조, 낮은 인지도, 당일치기 관람, 부족한 불가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잔치’ 전략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광주 최초의 현대식 극장은 1908년 황금동 파レス호텔과 그 옆 옛 남국카 바리 자리에 들어선 가설극장이다. 당시에는 일본 가부기 등을 주로 공연했지만 이 자리에 1925년 일본인 후지가 와가 ‘광주좌(光州座)’라는 현대식 극장을 개관하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됐다.

‘우등’라는 말처럼 관람석에 의사가 없어 다다미를 깔고 앉아서 영화를 봤다. 통로가 뭇만한 곳에는

판자를 깔아 신을 신고 다니지만 다다미석은 벗고 들어갔다. 이 때 문에 1층보다 2층이 상석이었고 입장료는 1층은 20전, 2층은 25전 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들어선 극장이 1920년대 현 무등극장 자리에 들어선 극장이다. 경성의 명동 명지화좌를 본떠 만들었는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공화극장과 동방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나문규의 ‘아리랑’을 상영한 역사적인 장소로 이름을 얻었고, 1974년 화재로 새로 지은 후에는 90년대까지 광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극장으로 명성을 누렸다.

1980년대에는 광주시내 종·고교생들 역시 뒤인길로 사라졌다. 대기업 자본이 글로벌 경쟁까지 장악한 지 오래지만 문화생활의 대표적인 영화 시장까지 내준 것이 안타깝다. 정시 상영도 지키지 않고 15분간이나 광고를 쏟아내는 복합관의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한다니 가슴이 아프다.

/정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한토극장의 몰락

한토극장은 광주극장이 유일하다.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은 조선인 최초 극장이라는 인정 표를 세웠지만 지금은 예술영화만 상용하는 단관 신세로 전락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대형 복합관에 밀려 이제 토종 개봉관은 역사의 뒤인길로 사라졌다.

대기업 자본이 글로벌 경쟁까지 장악한 지 오래지만 문화생활의 대표적인 영화 시장까지 내준 것이 안타깝다. 정시 상영도 지키지 않고 15분간이나 광고를 쏟아내는 복합관의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한다니 가슴이 아프다.

1980년대에는 광주시내 종·고교생들

1980년대에는 광주시내 종·고교생들

1980년대에는 광주시내 종·고교생들